



석학 초청 특강

이 정 식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

2014년 4월 29일, 5월 1일, 8일, 13일

청운관 B117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 한국현대사연구원



UNIVERSITY LECTURE

## 초대

경희대학교가 석학 초청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 특별 강연은 학계와 지성사를 선도하는 석학을 초대해,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성찰과 창조’의 장입니다.

역사는 내일이 태동하는 오늘의 뿌리입니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연 석학을 모십니다. 치열한 학자의 삶, 지성의 삶으로 평생을 일관해 온 이정식 경희대 석좌교수 (Eminent Scholar) 겸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명예교수를 초빙해, 한국의 독립 사상이 중국 중화질서와 일제 식민통치에 맞서 어떤 진화의 여정을 열었는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해안과 의지, 실천을 통해 독립사상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 소개



### 이정식 李庭植

경희대학교 석좌교수(Eminent Scholar)이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로 한국근현대사 및 동아시아 현대정치사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올린 정치학자, 역사가이다. 1931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하여 주로 중국 동북부(만주)에서 성장 후 도미, 정치학으로 UCLA(1956년, 학사)와 UC Berkeley(1961년, 박사)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미국사회과학 연구협회의 회 및 미국인문과학협회의 한국학공동위원회의 위원장(1970-77)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외교연구소장 등을 겸임하면서 동아시아의 현대정치사, 특히 한국근현대 정치사 연구에 몰두하여 괄목할 만한 학문적 금지탑을 쌓아 올렸다.

주요 영문 저서로는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1963), *Communism in Korea*(with Robert A. Scalapino, 1973), *Revolutionary Struggle in Manchuria: Chinese Communism and Soviet Interest, 1922-1945*(1983),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1985), *Park Chung-Hee: From Poverty to Power*(2012)가 있다. 이 책들은 한국어판 『한국민족주의의 운동사』(1982),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3(1986-87), 일본어판 『조선노동당 소사』(1980), 『조선노동당 약사』(1986), 『만주 혁명운동과 통일전선』(1989), 『한국과 일본』(1986) 등으로 번역되었다. 주요 국문 저서로는, 『김규식의 생애』(1974), 『혁명가들의 항일회상』(1988), 『구한말의 개혁·독립 투사 서재필』(2003),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 급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2005), 『대한민국의 기원: 해방 전후 한반도 국제 정세와 민족 지도자 4인의 정치적 궤적』(2006), 『여운형: 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융화주의자』(2008),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2012) 등이 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의 탁월성은 Scalapino 교수와 공저인 *Communism in Korea*로 1974년 미국정치학회 최우수 저작상(Woodrow Wilson Foundation Award)을, 그리고 2012년 국내 최고 권위의 경암(耕岩) 학술상을 수상한데서 알 수 있다. 그의 냉철하고 균형 잡힌 역사서술은 오늘 한국 지식사회를 일깨우는 성찰의 목탁으로 크게 울린다.



UNIVERSITY LECTURE

## 취지

역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쓰인다. 종래 식민주의사관의 극복을 최대 과제로 삼은 한국사학계는 민족을 주어로 한국근현대사를 조명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와 동서 양진영이 대립한 냉전시대, 그리고 탈냉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강의 이해가 엇갈리는 세력 각축장이라는 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19세기에 조선왕조의 지식인들도 화이(華夷)사상의 미몽에서 깨어나 독립을 일구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국망(國亡)의 역사를 쓰고 말았다. 1945년의 광복도 우리의 온전한 힘이 아닌 태평양전쟁의 결과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근현대사의 전체상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민족 자주성의 신화와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제사적 조망이 필요하다.

경희대학교는 한국근현대사 분야의 석학 이정식 경희대학교 석좌교수이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총 4차례의 특강을 개최한다. 우리는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이라는 제하의 이 특강을 통해 독립사상이 조선에 뿌리내리게 된 그 진원을 살피고, 독립 쟁취 실패의 이유를 찾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독립을 달성할 수 없었던 일제하의 현실을 되짚고자 한다.

한 세기 전 우리는 망국이란 실패의 역사를 쓰고 말았다. 그 시대의 아픔을 모르고서는 우리 시대의 앞길을 열 수가 없다. 격랑의 역사를 헤쳐 살아온 노학자가 거시적 눈으로 조망하는 한 세기 전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징전비후(徵前慈後)의 지혜와 안목을 기르게 해줄 것이다.

## 주제와 개요

#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

### 강연 1 독립사상의 진원(震源): 새로운 세계관을 펼친 천문학자 홍대용 4월 29일

어릴 때부터 천문학을 연구한 홍대용은 반짝거리는 천체들을 보면서 중화(中華)사상, 화이(華夷)사상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각성이 사대(事大)사상의 병폐를 청산하고 조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문명관 전환의 철학적 기본이 되었다.

### 강연 2 독립사상의 대두: 개화 독립당의 공론장, 박규수의 사랑방 5월 1일

서세동점(西勢東漸)이란 새로운 국제정세에 직면한 북학파 실학자의 후예들은 쇄국정책의 모순을 깨닫고 내정 개혁을 통한 조선의 자주적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한계에 당면했었다. 우의정을 지낸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의 사랑방은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등 문생들이 모여 신지식이 담긴 서양 서적을 읽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화와 독립의 꿈을 키운 최초의 공론장이었다.

### 강연 3 자주국방의 첫걸음: 최초의 근대 장교 서재필의 독립정신 5월 8일

자주국방을 급선무로 삼은 조선왕국은 근대적 군대 양성의 선봉을 키우기 위해 13명의 하사관 후보생을 일본 군사학교에 파송했다. 유일한 사대부로 이들을 인솔했던 서재필은 장교 임관을 위한 군사적 지식과 훈련 외에도 당시 일본에서 출간된 새로운 지식과 사조가 담긴 『자조론(自助論)』 등 베스트셀러들을 읽으며 독립정신을 키웠다.

### 강연 4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국제 여론 환기를 통한 독립운동 5월 13일

3·1운동 이후에 활발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은 무장투쟁, 사상투쟁, 거래의 힘을 기르려는 실력양성, 그리고 외교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1세기 오늘날의 시각으로 독립운동의 여러 노선들이 거둔 성과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면서 조선 독립을 위한 국제 여론 조성에 집중했던 서재필의 공헌을 되새겨 본다.



UNIVERSITY LECTURE

## 프로그램

**이정식**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주 제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  
일 시    2014년 4월 29일(화), 5월 1일(목), 8일(목), 13일(화) 13:30  
장 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사회: 허동현 (한국현대사연구원장)

일시		강연 주제	장소
4월 29일(화)	13:30~15:00	독립사상의 진원(震源): 새로운 세계관을 펼친 천문학자 홍대용	청운관 B117호
5월 1일(목)	13:30~15:00	독립사상의 대두: 개화 독립당의 공론장, 박규수의 사랑방	
5월 8일(목)	13:30~15:00	자주국방의 첫걸음: 최초의 근대 장교 서재필의 독립정신	
5월 13일(화)	13:30~15:00	3·1운동 이후의 독립 운동: 국제 여론 환기를 통한 독립운동	



## 주최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는 1949년 개교한 이래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와 함께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을 위해 교육·연구·실천을 결합하며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다각적 성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학술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사회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다.

미래문명원은 이러한 학술과 실천을 결합하는 경희의 전통과 비전 위에서 2005년 9월 설립됐다. 새 천년을 맞아 인간, 공동체, 문명, 지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더 나은 인류사회, 평화로운 지구공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미래문명원은 현대 문명의 아포리아, 지구적 차원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새로운 보편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 교육, 교류, 실천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 주관 한국현대사연구원

광복 이후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례 없는 압축 성장, 그리고 새로 발굴된 소련과 중국 측 사료는 기왕의 한국현대사 인식 틀을 허문다. 종래 식민주의 사관의 극복을 최대 과제로 삼은 한국사학계는 민족을 주어로 한국현대사를 조명해왔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 냉전 시대, 그리고 탈냉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은 열강의 이해가 엇갈리는 세력 각축장이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현대사의 전체상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민족 자주성의 신화와 한반도의 경계를 넘는 국제사적 조망이 필요하다.

한국현대사연구원은 국가와 민족과 이념의 울타리, 그리고 세분화·전문화된 학문의 경계를 넘어 국제사, 인류사, 문명사의 맥락하에서 인류학, 철학, 정치학, 종교학, 미래학을 포괄하는 '범학제적(trans-disciplinary)' 조망을 통한 총체사적·미래지향적 한국현대사 연구·교육·실천 사업을 수행한다.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UNIVERSITY LECTURE

석학 초청 특강 University Lecture은 학계와 지성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대해,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성찰과 창조’의 장입니다.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정신으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학 초청 특강은 세계적인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실천인을 강사로 초빙해 우리 사회와 인류문명의 새로운 안목,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